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계좌 입금,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 후원 373명 748건 11,030,000원 / 계좌 입금 2명 50,000원

-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영상 강응택 강재은 강치호 강호수 고경태 고수원 고지철 고희라 공지환
- 곽영현 곽용호 구경란 구자민 권승호 권영숙 권호정 길주연 김가영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수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식
- 김구환 김남수 김대석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백영 김병섭
- 김삼부 김상덕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승배 김수진 김승진 김아미 김영경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철 김왕균 김용규 김용남
- 김용섭 김용철 김위정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정라 김정미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 김지혜 김창년 김학규 김현기 김혁동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숙 김혜정 김호연 김희균 나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마석훈 마정에 명보산업개발(주) 문성룡 문신호 민병선
- 박경애 박경호 박경희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서영 박성수 박성문 김숙정 박영선 박인옥 박장식 박진수 박채영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 박홍식 배영수 배필늘 백미숙 백병부 변기영 빈종일 서자스민 서홍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 손정현 손진근 손진윤 송민혜 송지은 신동운 신윤숙 신주영 신한슬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송이 양자영 양화숙 양후남 어통수산(주) 오경석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정훈 웅석희
- 우성섭 우성호 우종걸 원정석 원현구 유경우 유선기 유아름 유원유통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종선 유지상 유춘자 유택규 유향옥 윤민호
-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호선 은종복 이경희 이광일 이근진 이근행 이기호 이동우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숙 이민수
- 이민지 이병규 이보완 이봄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선애 이선재 이성호 이소안 이수미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 이승욱 이승환 이시하 이영주 이오순 이용수 이원범 이윤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연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 이종현 이준웅 이지은 이진우 이철희 이한복 이한진 이항미 이현주 이혜림 이흥구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봉규 임선일 임영빈 임은숙
-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영순 장진숙 장희숙 전경일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봉균 전수미 전영복 정다운 정문자 정미영 정상인
- 정석현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종명 정지은 정철 정태균 정희정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동일
-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성은 조숙자 조영도 조윤정 조은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하한 주주자 진성기 진숙경 차상진 차영순 채신자
- 천희진 최경주 최도연 최문택 최민현 최상윤 최선주 최선희 최소영 최수남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일훈 최재화 최종현 최진웅 최철훈
-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종수 하태광 한광덕 한현 허미경 허영순 허인영 형제수산 홍금자 홍상미 홍수연 홍수정 홍현일 황국덕
- 황들남 황소연 황현정 (주)두인기전 (주)우영산업

- * 13 창수네 사과, 사과즙, 모과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 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 653-5791 / 팩스 043) 653-5798 / 김동곤 010-3803-5897



제천간디학교지 계간 《간디IN》 2017년 겨울 호(통권 44호) / 발행인 손진근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이한결 / 담당 교사 김정환 / 기저 (화년순) 이한슬 이재형 이한결 최민형 최우경 김담 김재하 박우재 이상민 권문
사. 김서준 / 발행일 2018년 1월 17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표지에 실어 달라며 저희에게 사진을 건네준 친구들. 안 실을 수가 없습니다. 표지에 딱 하고 박아 놔오니, 잘 간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때 저 친구들, 저 포즈들 잊지 맙시다.

-이한결(4학년)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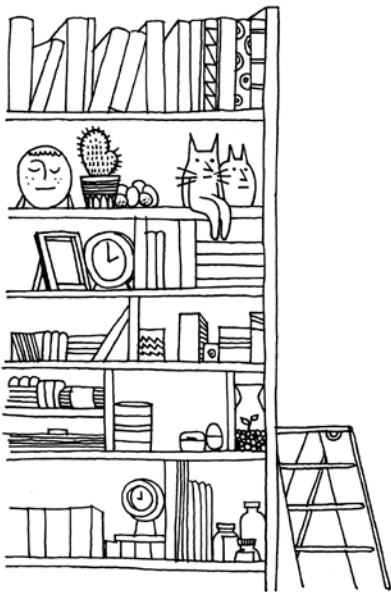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 김

차례

- 간디인 갤러리 눈이 녹아내리는 사이 :: 이담(2학년)
- 02 여는 글 올해도 어김없이 :: 이한결(4학년) 편집장
- 05 우리끼리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 김서준 기자(1학년)
- 09 특집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 최유경 기자(4학년)
- 콩자반 순위공작단!!!
- 6년살이 이러쿵저러쿵
- 졸업을 마주하며 :: 김시훈(6학년)
- 6학년들을 떠나보내며 :: 김정환(6학년 담임교사)
- 22 반가워요, 후견인 힐링은 내가 책임진다! :: 권윤서 기자(2학년)
- 25 사설 간디학교의 꽃, 다시 피자!! :: 이재형 기자(4학년)
- 31 화제의 인물 암마! 김창수! :: 박우제 기자 (3학년)
- 39 우리 지금 만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 이성민 기자(2학년)
- 46 m.s.g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 이한솔(5학년) 기자
- 51 아 제 점수는요 연지가 추천하는 시 :: 조연지(3학년)
- 51 편지 후견인 여러분께 :: 교장 이병곤
- 54 기자 후기

올해도 어김없이

이한결(4학년) 편집장

1월 16일. 영하 4도. 지독하게 추운 이곳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공상을 떨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공상을 떨어 왔던 우리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곁에서 공상을 떨어 온 사람들이 바뀌었지요. 약간 어색하지만, 앞으로의 공상이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긴 논의를 거쳐 학교의 교육과정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기존 6학년제를 벗어나 1~4학년이 여덟 반으로 나뉘어 멘토 반으로 운영되는 구성의 변화가 가장 새롭습니다. 더불어서 분기*마다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활동을 통해 배움을 찾는 과정도 만들어 봤지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바뀐 교육과정 속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들었던 학년을 떠나 보내고 어색한 선후배와 함께 반을 쓰게 되었

죠. 여전히 학교는 활기차지만 14살부터 17살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인다는 건 생소한 일입니다. 어쩌면 서로가 불편할 수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정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기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이 '낯섦'을 발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또래 압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또래 집단에서부터 오는 사회적 압력이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우리는 주위 또래가 주는 영향에 오락가락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주위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 5~6주를 묶어 분기라고 칭하고 학사 일정이 운영됩니다. 한 분기를 보내면 열흘 정도의 가정학습 기간을 보냅니다.

속에서 또래 압력이 자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마주치기 힘들었던 선배의 모습에서, 학년에 가려 숨겨졌던 끼를 발산하는 후배의 모습에서 자극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반'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생활에 활력이 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고 동기가 생기는 과정에서 그토록 말하던 자발성이 올라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색해서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발성이고 뭐고 일단 노는 데 집중하는 경우는 더욱 많고요. 이마저도 좋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항상 설레고 활기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교 공간 등 여러 곳에서 변화가 밀려오지만, 이런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바로 공상입니다. 지독하게 춥고, 편의점 하나 없는 외진 시골인데다 심지어 가난합니다. 이런 부족함에 학생들의 불만은 가득합니다. 언제 난방이 들어올까, 전산실 컴퓨터가 고쳐질까 투덜대며 학교를 다니죠. 맞습니다. 살던 집보다 학교는 가난합니다. 환경이 가난할 뿐일까요, 마음이 궁핍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평소 즐겨 왔던 놀거리들, 먹거리들은 공동체의 약속으로 멀어지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쉽고 편하게 누리던 것들을 조금 불편하고 공상맞게 누리야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공상을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떠는 우



리의 공상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더 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 사라진 생활이 왜 좋은 걸까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넘치는데, 이 좁은 학교에서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 움직이는 모습이 예쁘다고 느껴집니다. 공상으로 시작해서 한 뼘 자라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학교 밖에서 보면 보잘 것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곳에선 달라집니다. 가지고 있을 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누리고 있을 땐 기를 수 없었던 힘을 얻고 있죠. 어떻게든 좀 더 누리려고 애쓰는 우리의 공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 보기를, 그리고 누리 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공상떠는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상다반사는 공상이 아니라 게으름을 떨었습니다. 지난 가을 호의 마감이 장기간 미뤄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지요. 마감에 늦는 기자들에게 화도 났지만 제 역량을 탓하며 가을 호를 마쳤습니다. 길고 힘든 가을 호를 마치니 찾아온 겨울. 심각성을 느낀 편집장은, 마감에 넘긴 글은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제 선포는 별 힘이 없었나 봅니다. 혹시나 하며 마감에 기다렸지만 역시나 기

사는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기사를 써 내려 겨울 호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유종의미를 거두는 노래방 프로젝트부터, 침체기를 맞은 주여 문화를 들여다본 우리 지금 만담, 절에 갔다 온 뒤 득도라도 한 듯 기사를 쓴 최유경 기자의 특집 기사 등 재밌는 기사가 많습니다. 마감에 늦는 건 언제나 밉지만, 이런 기사들을 써 준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마감도 잘 지키는 멋진 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다반사를 바꿔 보겠다고 패기 넘치게 말했던 작년 겨울이 기억납니다. 그때의 패기와 오기로 벌써 1년을 채웠지요. 힘든 만큼 좋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밌는 소식지를 내고 싶었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멋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간디 in 칭찬을 들을 땐 만사가 행복하다가, 안 읽는다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이를 갈 때도 있었네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순간도, 부끄러운 순간도 간직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년 봄에도 패기 가득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기꺼이 맞이해 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과 추위 속 공상을 담아 겨울 호,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김서준 기자(1학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전시회를 기획 중인 PARILL 멤버들(민경, 성현, 연, 영학, 하늘 5학년) 중 민경, 성현, 하늘을 일상다반사가 독점 취재하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그녀들과의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 보실까요?

5명에서 뭉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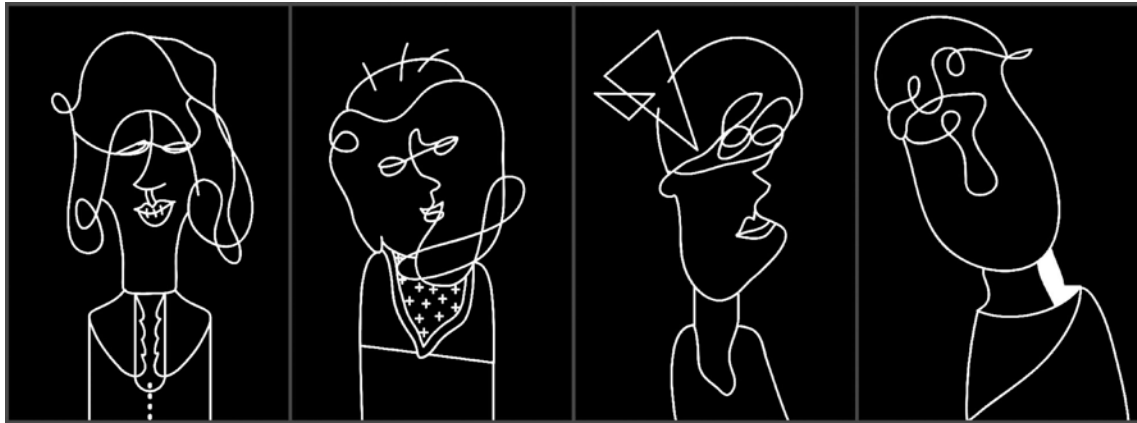
민경: 처음에는 나랑 남궁연이랑 정영학이 시작했는데, 정영학이 세상을 바꾸고(웃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전시회를 하자고 해서 관심 있는 애들을 섭외했어. 또 우리는 3명인데, 정영학은 러시아에 있으니까 회의가 잘 안 되는 거야. 의지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위하늘을 섭외했고, 박성현은 중간에 하고 싶다고 말해서 합류했어.

전시회 모임 이름이 PARILL인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민경: 원래 3명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 전까지는 정확한 이름이 없다가 위하늘이 들어온 날이 8월 21이어서 '821'이라고 정했고, 영어로는 PARILL이라고 써.

전시회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늘: 말하기는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번 전시회 주제는 '감정'이야(웃음).



제목 미정. 표현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왼쪽부터) 1. 애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애초에 꺾매 버린, 2. 한 형태에 두 개의 얼굴인데 사랑하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3. 머리 깊숙이 박힌 상처와 생각들, 4.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감정’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경: 사실 첫 전시회니까 장르에 국한되고 싶지 않아서 영상, 그림,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주제가 감정이라고 생각했어.

‘감정’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작품의 장르에 국한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작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늘: 나랑 박성현은 도자기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도자기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에 그리는 걸 도자기에 그린다고 보면 돼.

민경: 나는 사진이나 그림, 콜라주를 만들고 있어. 영상을 계획 중인데 아직 못하고 있고, 요즘은 설치 미술을 생각하고 있어.

설치 미술은 처음 들어 보는데 설치 미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경: 그림이나 사진은 평면이잖아. 근데 설치 미술은 입체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데 선인장을 하나 사, 그리고 선인장에 풍선을 달아 놓는 거지. 그러면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영학 오빠가 러시아에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민경: (곧바로)네.

하늘: 일단 소통이 안 돼. 오늘도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웃음).

민경: 사실 이 모임을 주최한 건 정영학인데, 막상 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우리가 독축을 해도 문자밖에 안 되니까 개가 우리의 독축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나름 자기의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 것 같은데, 작품 외에 다른 일들을 개량 분배를 못 해.



낭만

각자 미술에 관심이 생긴 건 언제부터인가요?

하늘: 어렸을 때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미술관 투어를 되게 많이 했었어. 그 때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나도 나중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민경: 나는 확실히 엄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전시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엄마가 “전시회 가 볼래?”라고 많이 물어봐 줘서 근본적으로 전시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성현: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기는

했어. 그러다 학교에 입학하고 그림 말고도 다른 예술 분야를 접해 보게 된 거야. 그림을 그리다가 사진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한참 찍다가, 또 넘어가서 도예에 빠졌어. 요즘은 도예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작품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 편이에요?

성현: 기숙사 올라가는 길? 기숙사에 올라가면서 잡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

하늘: 나는 기숙사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웃음),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생각 나. 샤워를 하면



서 어떻게 그럴지 생각을 하는데, 샤워가 끝나면 잊어버려서 문제야. 샤워를 하면서 적을 수는 없잖아(웃음).

민경: 나는 반대인데. 우리 PARILL 정기 모임이 있어. 나는 다 같이 작품을 만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 같아.

주로 작품에는 어떤 감정을 담나요?

성현: 나는 대체로 작품들이 다 우울해. 즐거운 영감들이 잘 안 떠올라. 우울할 때만 영감이 잘 떠올라. 그래서 요즘에는 즐거운 작품들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야.

하늘: 주로 작품에 담는 감정은 나에 관한 것들이라 해야 하나?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전시를 함으로써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

민경: 근데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손이 가는 대로 그린 다음에 감정을 생각하는 편이야. 어떤 감정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을지는 나중에 찾아.

곧 있으면 졸업이고 졸업 후에는 진로를 정할 텐데, 진로도 미술 쪽으로 가나요?

하늘: 올해 구체적으로 생긴 계획인데, 졸업 후에

는 미술 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던 것 같아. 희망 사항으로는 유학도 가고 싶어.

민경: 개인 무병을 준비하면서 기획에 관심이 생겼어. 근데 기획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 전시 기획, 행사 기획, 잡지 기획 등등 많은데, 사실 내가 기획을 정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고민 중이야. 근데 기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웃음).

성현: 올해 도예 작업장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이 많았는데 확정은 인턴십[■]을 다녀와서 지을 거고, 도예 쪽으로 나가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해.

마지막 한 마디!

다 같이: 저희 PARILL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시 자금도 마련 중이어서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국민은행 499402-01-323342 차민경, 문의 전화는 010-9496-6495입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서로서로 어색해서 과연 인터뷰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화기애애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재미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PARILL의 전시회 많이 응원해 주세요! ♡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최유경 기자(4학년)



별 탈 없이 흘러가던 학교가 연말에 접어들고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한층 소란스럽습니다. 학생회도, 동아리들도, 학생 개개인들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각자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중 가장 올해를 마무리하는 감회가 남다른 학생들, 역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6학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이번 2017 겨울 호에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공자반 졸업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 본교 6학년의 교육과정. 사회에 나가기 전 본인과 학교의 철학에 맞는 단체나 기업으로 인턴을 나가 배우는 활동이며 약 3~4개월 동안 진행된다.

콩자반 순위공작단!!!

전교생을 상대로 6학년 이미지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실제가 아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설문한 것이므로
재미로 봐 주세요~

• 제일 예쁜 6학년

- 1등-안효원
- 2등-정기온
- 3등-문서경

• 제일 잘생긴 6학년

- 1위- 신동현
- 2등- 차한비
- 3등- 안상윤, 김민석, 최형서, 하늘찬

• 제일 똑똑해 보이는 6학년

- 1위- 이예슬
- 2위- 신동현
- 3위- 오정택

• 제일 순진해 보이는 6학년

- 1위- 김은수
- 2위- 문서경
- 3위- 김단아

• 식당 쌤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6학년

- 1위- 정기온
- 2위- 김민석
- 3위- 오정택, 이지민

• 가장 술 잘 마실 것 같은 6학년

- 1위- 김민석
- 2위- 김가람, 이예슬
- 3위- 하늘찬

• 가장 술 못 마실 것 같은 6학년

- 1위- 문서경
- 2등- 이시은
- 3등- 김은수

• 졸업해서 가장 돈 잘 벌 것 같은 6학년

- 1위- 오정택
- 2위- 이예슬, 하늘찬
- 3위- 김민석, 문서경

• 졸업해서 가장 망할 거 같은 6학년

- 1위- 하늘찬
- 2위- 김민석
- 3위- 김단아

• 가장 속눈썹이 길 것 같은 6학년

- 1위- 정기온
- 2위- 이예슬
- 3위- 차한비

• 가장 모기 잘 잡을 것 같은 6학년

- 1위- 박성민
- 2위- 하늘찬, 안상윤
- 3위- 우어진

• 가장 먼저 취업할 것 같은 6학년

- 1위- 이예슬
- 2위- 이지민, 오정택
- 3위- 안효원

• 졸업해서 정치할 것 같은 6학년

- 1위- 오정택
- 2위- 김민석
- 3위- 김시훈, 신동현, 이지민, 최형서

• 선생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6학년

- 1위- 이지민
- 2위- 김은수
- 3위- 김민석, 신동현, 박지담, 이시훈,
문서경, 이시은

• 선생님 말을 가장 안 들을 것 같은 6학년

- 1위- 하늘찬
- 2위- 김민석
- 3위- 차한비, 김가람, 김시훈

• 다시 덕산으로 돌아올 것 같은 6학년

- 1위- 김가람
- 2위- 김민석, 이시은
- 3위- 박성민

• 졸업하고 연락 두절될 것 같은 6학년

- 1위- 문서경
- 2위- 김시훈
- 3위- 김단아

•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학교 찾아올 것 같은 6학년

- 1위- 김민석
- 2위- 김시훈
- 3위- 박성민

• 동기끼리 결혼할 것 같은 6학년

- 오정택♥김단아

6년살이 이리쿵저리쿵

장장 6년간을 좁은 학교에서 살 부대끼며 산 6학년, 그동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무궁무진하게 많았을 텐데요. 전부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콩자반이 짧게나마 모여 6년살이를 도란도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 6년 동안 기억나는 에피소드

지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어.

민석: 박성민 집 가서 토 오지게 한 거.

성민: 미친놈아!!!! 가람이도 같이했지.

효원: 필리핀 갔을 때 정환 쌤 죽을 뻔했어.

은수: 우리는 아무도 그때 몰랐는데 혼자 파도 치는 데 들어가서...

효원: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그냥 우와~ 하고 있었어.

시훈: 그때 정환 쌤이 바다 들어가서 몇 초 동안 얼굴이 안 보였는데, 그냥 수영하는 줄 알았어.

효원: 나중에 나와서 씻다가 안경알 나가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셨잖아. 일상이 코미디야.

민석: 1학년은 기말 축제 때 풍물하잖아. 근데 지민이가 나랑 같은 장구였나? 근데 내가 계속 연습 안 한다 그래서 지민이가 울었었어. 엄청 서럽게 울었어. 학급회의 때도 엄청 혼나고 김민석!!! 이러면서.

예슬: 나 1학년 2학기, 김은수 부반장일 때 문서경 자리 가서 수다 떨고 있었는데 김은수가 진짜 개정색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러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은수가 무서운 인상을 숨겨 왔던 건가 싶었어. 그래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지...

시훈: 3학년 무빙 갔을 때 제주도에서 엄청 큰 숙소에서 잤었잖아. 거기서 나 늘찬이랑 되게 크게 싸웠었어. 주먹 주고받을 만큼 크게 싸웠었는데, 다른 남자애들이 말릴 때 너네 이거 탄 애들이 알게 되면 평정위 올라가고 난리 날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었어.

성민: 나 예슬이랑 시은이랑 1학년 때 공부방에서 밤새고 학교 내려갔었어. 내려가면서 노래 부르고 막.

시훈: 나 진짜 억울한 거 있어. 늘찬이네 외할머니 맥에서 아침 먹었었는데 내가 울었었어.

민석: 남자애들이 시훈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놀았거든ㅋㅋㅋㅋㅋㅋ

정택: 엄청 스펙타클한 사건 있었는데, 1학년 때 주프조가 있었어. 근데 주프하다가 효원이랑 싸워가지고 효원이가 울었었어. 근데 내가 울었다고 어느 형한테 혼났어.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공책에 썼는데 그 공책을 그냥 책상 위에 놔뒀다? 그리고 학교 내려가서 효원이랑 화해하자 그러고 화해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효원이가 나한테 왜 친한 척을 하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공책에 있던 글을 누가 찢어서 효원한테 배달을 한 거야. 누가 봐도 내 글씨였어. 그 글에 다른 형 얘기도 있어서 2차 난리도 있고 막 그랬어.

시훈: 드라마 급이네.

시은: 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2학년 소풍 때 가람이랑 지담이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민: 그래, 그때 남자애들 술 마셔서 가 봤더니 민석이가 칼 놓여 있는 테이블에 뛰어다녔어. 늘찬이 안 취했는데 취한 척하고 박지담은 신발장에서 슈퍼맨~ 자세하고 신동현은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각오를 다 하고 마신 거야. 너네는 돌아가. 막 이라고

예슬: 민석이가 자려고 누워 있는데 계속 덜덜덜 덜 떨었어. 그래서 안상윤이 막 옷 덮어 주고, 그리고 김시훈이랑 차한비랑 되게 멀쩡했다? 그래서 회의하는데 되게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 없더니 자고 있더라ㅋㅋㅋ

예슬: 2학년 때 학교에서 소풍할 때 양호실에서 뻘뻘로 게임했었는데, 안상윤만 네 번인가 걸렸어.

효원: 나랑 시훈이랑 걸렸는데 내가 너무 빨리 해버린 거야. 그래서 시훈이가 넌 그렇게까지 싫냐고 서운해 했어.

정택: 민석이 상대가 효원이었는데, 민석이 이미지가 되게 야한 거 좋아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뻘뻘로 물고 엄청 덜덜덜덜 떨었어.

성민: 애들이 너 너무 떨어져 입술 닿겠다고 그랬어.

정택: 천일여행 때 다 같이 술 마셨었는데 근데 벌칙으로 뽀뽀가 있었어. 근데 둘 다 애인이 있어서 냉면 그릇으로 벌주를 마셨었어.

♥ 흑역사

시훈: 민석이 자퇴한다길래 학기 마지막 날에 기숙사 올라가서 술을 마셨는데 김민석이 자퇴한다고 분위기란 분위기는 다 잡고...

성민: 애들 안고 울고 콧물눈물 다 했다 그랬어.

시훈: 근데 편입한다고 카톡 봤을 때 진짜 욕했어.

정택: 노뜰에서 대걸레에 늘찬이 발가락을 찡겼어. 근데 서경이가 청소 당번이었는데 미안하다고 울었어. 그래서 애들이 왜 울어ㅋㅋㅋ 막 그랬어.

민석: 문서경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 산 갔는데 막 웃다가 갑자기 울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났어.

서경: 아니 그때가 예정하지 않은 등산이었잖아.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걸 올라가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랬어.

예슬: 노뜰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풀길에서 촛불 들고 엄청 오래 산책하는 거 했었잖아. 근데 중간에 정기온 어두운데 길 잃어버리고 혼자 40분인가 늦었어.

은수: 아침에 나랑 서경이랑 같은 학년 방이었어. 근데 엄청 큰 소리가 101호에서 들리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단아랑 시은이랑 침대 옆에 앉아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괜찮냐고 물어 봤는데 먼저 내려가래.

서경: 근데 마지막에 내려가려고 옷 입다 말고 부동켜안고 화해를 했을걸. 질투 섞인 그런 싸움이었어. 누가 더 친하다 뭐 이런 거.

정택: 나랑 시훈이랑 2층 침대에 누워서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어. 두 시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옆방 사람들이 어제 너네 싸웠냐고 막 그랬었어.

은수: 갯벌도 재밌었는데.

민석: 난 인문학도 재밌었는데.

시훈: 생명여행이 생각보다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구나, 난 기획하는 입장에서 애들이 평가할 때 다 거지 같다길래 거지 같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민: 아냐, 되게 재밌었어. 졸업여행 잘 부탁해.

시훈: 우리 반끼리 모여서 놀았던 건 중등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예슬: 단체로 모여서 유부초밥도 만들어 먹었어.

효원: 할로윈 때 재밌었어.

시은: 덕산에 다 얘기해 놓고 먹을 거 받으러 트릭 오얼트릿 하는 거 진짜 좋았어.

♥ 우리 학년이 학교에서 이걸 제일 잘했다!

정택: 가을 축제!

은수: 제일은 아니지.

어진: 제일이지!

시훈: 우리가 어떤 수업이나 활동하면 하기 싫어 하다가도 결국 다 해.

성민: 자퇴 안 하고 모인 거. 민석이도 돌아왔고.

♥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

정택: 종명 쌤

시훈: 민혜 쌤

효원: 종명 쌤, 민혜 쌤

시훈: 아니면 고등부 올라와서는 상현 쌤도 있고.

성민: 종명, 민혜, 상현, 정환...? 정환 쌤도 넣어 주자.

♥ 가장 즐거웠던 때

효원: 1, 2학년.

민석: 3학년 무빙 진짜 재밌었어.

예슬: 와라도도 진짜 좋았고, 3학년 무빙 진짜 좋았어.

효원: 우리 조개 먹고.

♥ 가장 크게 싸웠을 때

예슬: 근데 우린 단체로 싸운 적은 없어

효원: 3학년 때!

예슬: 우리는 싸운 적은 없어, 냉전이었지.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우리는 늘 무빙 가기 전에 사이



가 정말 안 좋았어. 3학년 때도 그렇게 필리핀 가기 전에도 그랬어. 그리고 무빙 가서는 와아아 이러면서 잘 놀아 가지고 난 좀 뭔가 싶었어.

시은: 내 기억에 3학년 무빙 전에 엄청... 남자애들은 뒤에서 막 궁시령궁시령대고 여자애들도 왜 재네는 얘기 똑바로 안 하냐고 궁시령궁시령대고.

어진: 그때 웬지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예슬: 그래서 난 무빙 가서 터지겠다 생각했는데 정작 무빙 가서 너무 좋아졌어.

어진: 근데 진짜 갑자기 여자애들 좀 그렇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어.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시훈: 진짜 신기한 건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었어.

정택: 그래서 난 단체활동에 대해 고민했어. 그럼

나도 여자애들이랑 말을 안 섞어야 되는 건가? 안효원, 오정택의 만남이 아니라 남자 대 여자로 여자애들을 싫어해야 하는 건가 고민했었어. 근데 딱 남자애들은 다 개인적인 만남은 가지면서 여자애들 자체는 막 욕을 하는 거야.

예슬: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재네는 왜 평소에는 우리랑 말 잘하다가 꼭 뒤에 가면 궁시령대냐고 쪼잔하다고 얘기했었어.

시훈: 우리가 어떤 걸로 여자애들을 뒷담 갔는지 조금 기억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회의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막 그랬었어. 지들 생각만 한다고 그런 거 많이 얘기했었어.

효원: 그래서 민혜 쌤이 우리 사이 좋아지게 하려고 풋볼데이트 같은 거 하고. 근데 그거 한 이후로 남자애들이랑 더 어색해졌어. 난 아직도 형서랑 어색해.



졸업을 마주하며

김시훈(6학년)

♥ 가장 자퇴하고 싶었던 때

성민: 민석이 이야기를 들어 보자.

민석: 난 지금도 하고 싶어!!!!

♥ 졸업하기 전 해 보고 싶었던 것, 이뤘던 것

민석: 무사히 졸업하기.

정택: 미디어매체 언론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난 라디오 정말 잘될 줄 알았는데 망했지.

시훈: 난 하고 싶었던 게 백지화 시범기간 때 스타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간디 배 토너먼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시은: 아쉬운 게 여자 g리그가 너무 아쉬워...

성민: 밴드.

정택: 난 정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우리 학교는 일반 대중이 없잖아, 정당이 있으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어.

♥ 나에게 간디학교란? 콩자반이란?

시은: 포트폴리오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담: 간디학교란 철새가 돌아오는 서해 바다 같은 곳이다.

(환호)

시훈: 간디학교는 투 플러스 원 같은 곳이다. 두 개를 선택하면 하나가 달려 와.

정택: 나에게 간디학교란 철학책이다.

시은: 간디학교란 여의주다. 용됐다.

시훈: 콩자반은 6년 동안 학교생활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다.

정택: 나에게 콩자반이란 전 여친이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민석: 콩자반은 동지.

나는 간디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생각했었다.

평범한 학생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내가 6년 후에는 뭘 생각하며 졸업을 준비하고,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를 6년 내내 생각했다. 매년 졸업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때 어떤 느낌일까, 졸업식 때는 어떤 말을 할까와 같은 상상을 하기도 했다. 이때 했던 생각들의 대부분은 졸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졸업 후 미래의 불안감에 가까웠던 것 같다. 학생이 아닌 내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졸업 이후 사회에서 당장 마주 칠 고민들이 대부분이었다.

학교 생활 내내 계속했던 졸업 후에 대한 불안감은 내 학교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선택 수업을 들을까 말까 결정할 때도 이 불안감에 의해 결정했고,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결정할 때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도 이것들이 졸업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었다. 당연하게도, 이런 불안감에 의해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았다. 늘 부정적이고 좀 뼈뺌하게 생각하는 것도 불안감에서 생겨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불안감

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졸업이 다가올 리가 없었다. 내가 가진 불안감은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다가오는 졸업에 점점 더 불안해졌었다. 자꾸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웠고, 영원히 졸업을 하지 않고 학생으로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이런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학년 무빙[■] 이후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때의 내가 불안감을 덜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쓸모 없지 않았고, 나도 사회에 나가서 조금 모자랄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 물론 무빙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준비하긴 했지만 무빙 중간에 단체 선생님들이 해주신 칭찬과 격려, 그리고 담임 쌤을 통해 전달된 선생님들의 평가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었다.

학교 공간 밖에서도 김시훈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제 몫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말이나 행동에도 자신감이

■ 움직이는 학교, 무빙 스쿨의 졸업말. 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 매년 6월 모든 학년이 학교 밖에서 배움을 얻는다. 이중 5학년은 개개인별로 학교의 가치와 맞는 단체를 선정해 다녀온다.

붙었고, 더 이상 불안감에 의해 무언가를 결정짓지 않았다. 인턴십[■]도 무빙과 비슷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뒤에 자신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시간이 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단순히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분명 준비하는 과정과 일하는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난 다가오는 졸업을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졸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졸업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내 6년 동안의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나는 뭘 했었는지, 뭘 배웠는지와 같은 생각들 말이다. 6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았다. 물론 누구나 후회할 일은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던 것 같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서 몇 대 때리고 오고 싶은 1학년 때라든가(정말 최악의 흑역사…), 내 좆대도 없이 친구들과 따라다니기만 했던 2학년이나, 내 게으름 때문에 해야 할 걸 못 했던 3학년도 있고(논문과 논문, 그리고 논문), 정말 우울함과 자괴감이 만땅을 찍어서 주변에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다녔던 4학년 때도 있다. 그나마 5, 6학년은 후회할 만한 일을 별로 안한 것 같지만… 예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민폐를 끼쳤던 걸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숨고 싶어지는데,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

에게는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근데 굳이 물어 보고 싶지는 않다.)

또 내가 6년 동안 학교에서 살면서 뭘 했었고 뭘 남겼는지 생각해 보자면, 정말 딱히 한 게 없었다. 남들도 다 하는 활동들 빼고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뭐가 없다. 참 허무하고 좀 비참하기도 했다. 6년이라는 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 시간 낭비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만 뒤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나도 참 별거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허탈한 마음으로 지내다 포트폴리오와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꼭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결과물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그때마다 했던 생각들, 친구들과 했던 얘기들이 내가 학교에서 했던 행동의 결과물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학년의 나와 6학년의 내가 다른 것만으로도 그간의 학교 생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멋들어진 글이나 그림을 남긴 건 아니지만, 분명 예전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인식하고 고치려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고쳤다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라 아쉽긴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 저런 사소한 아쉬움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졸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졸업’ 하면 생각나는 얘기들을 적었다. 웬만해서

는 졸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쓰고 싶었지만, 나도 아직 졸업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쓰려고 했어도 굉장히 중구난방하고 복잡한 글이 되었을 것 같다. 내가 졸업이라는 주제로 완전하게 내 생각을 풀어내려면 아마 졸업을 하고 시간이 좀 흐른 후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싶다. 어쨌든 난 곧 졸업을 할 것이고, 학생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

6학년들을 떠나보내며

입교 후 첫 학급회의 안전이자 알게 모르게 다른 학년과 쌤들이 주목하는 건 반 이름이다. ‘반 이름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가 그 반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한다.(참고로 한 학번 선배인 11학번 반 이름은 ‘신호위반’이었다) 담임이었던 종명 쌤이 반 이름을 ‘콩자반’으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왔다. 딱히 재밌지도 기발하지도 않았다. 솔직히 촌스러웠다. 학급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던 종명 쌤과 이를 잘 따랐던 ‘콩자반’은 소풍 비용을 마련하려고 대동제에서 무엇을 팔고 다녔다. 내가 기억하기로 1학년이 대동제부터 학급을 위해 무엇을 팔고 다녔던 것은 처음이었다. ‘콩자반’과 소풍간다고 뭘 팔아 달라고 조르던 반 이름처럼 새끼만 아이들. 덕산과 잘 어울렸다.

지만 간디학교의 학생은 아닐 것이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되어서 그런 건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졸업의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그래도 어쨌겠는가. 졸업은 해야지.

김정환(6학년 담임교사)

가족사는 내가 2012년부터 필수수업으로 개설한 수업이었다. 2학년 주프 과제로 있었던 자서전 쓰기를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자서전을 써, 내가 여기 있기까지 이 땅과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며 기획한 획기적인 수업이었다. 첫 대상 학년이었던 11학번 친구들은 무빙도 자기 학년부터 덕산으로 바뀌고(그것도 내 기획이었다), 없던 필수 수업 생겼다고 불만이 많았다. 콩자반 친구들은 선배들 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큰 저항이 없었다. 다들 열심히 했다. 오히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였다. 수업 때 들은 내용 + 본인이 정리한 내용 + 가족 인터뷰로 구성되는데, 첫 해에 비해 원고 양이 너무 많았다. 내가 사용한 피피티 내용에 백과사전을 동원해 내용을 보완하고 가족 인터뷰도 길게 잘 뽑아 온 친구들이 많았

■ 학교 교육 과정의 일종. 매년 6학년은 본인이 선정하고 선택한 단체에서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한다.

다. 원고를 합쳐 보니 320쪽이 나왔다. 덕산의 추위와 싸워 가며 열심히 편집했으나 잘못된 내용, 오타자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다. 결국 공자반의 가족사는 출간하지 않았다. ‘왜 아직 안 나오냐’는 말에 아직 편집 중이라고 대답하면서 1년을 버티자 더 이상 묻는 친구들이 없었다. 타인의 일대기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미안해 친구들.

2015년에는 ‘공자반’과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을 같이 가게 되었다. 2014년, 청년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와 같이 하면서부터 거의 모든 숙박을 홈스테이로 하고, 관광 대신 현지 문화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는 공정여행 형태로 변화하였다. 2014년 첫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 공감만세와 연대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단체와 호흡도 좋았고,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에서 큰 감동과 빅 재미가 있었다. 11학년도 늘 자신들은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희생양이라며 툭툭대긴 했지만, 필리핀 현지 단체와 현지인들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진행한 거리모금과 직접 디자인한 엽서 판매로 300만 원 가까이 모으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잘 놀다 왔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선배들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와 좋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출발한 ‘공자반’ 친구들은 필리핀에서 내내 ‘왜 우린 선배들한테 들은 것처럼 좋지 않지?’라는 의문을 달고 다녔다. 당연히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현지 단체 분들도 작년과 학생들이 많이 다르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공자반’ 친구들은 작년 선배들과 비교하지 말라

며 입이 나왔고, 작년 경험밖에 없었던 나는 ‘비교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같이 담당했던 정호 쌤과 평가회의에서 막판에 혹은 중간 중간에 늘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겠다고 제안했다. 필리핀 간디학교 일정을 제외하면서 바다에서 놀거나 익사이팅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졌고, 마지막에 간 바다조차 날씨가 좋지 않았고, 기대했던 모습도 아니었다. 돌아보니 첫 해의 성공(?)으로 무리하게 프로그램의 내용적 완성을 시도했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다. 필리핀 가서 그 멋진 해변의 추억도 없이 돌아오다니... 미안해, 친구들.

2016년 2학기. 12학년 친구들이 전에 없던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생기 없이 추적추적 학교를 배회하고, 어딘가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표정들이었다. 그동안 쌓여 온 불만 혹은 무기력함이 이제야 올라오는 건지, 멘토 반 별로 진행한 진로 프로젝트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한번 쯤 고민하게 되는 자퇴 고민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표면상의 이유는 멘토 반 별 진로 프로젝트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각 멘토들로부터 12학년 친구들의 공격적이면서도 무기력한, 둘이 공존할 수 없는 태도가 동시에 관찰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당시 6학년 담임이었던 나는 6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장이 일어나는지 놀라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몇몇 친구들이 자퇴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교사회에서도 이러한 12학년 친구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6학년 담임을 빨리 배정해 이러

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자고 결정했다. 6학년 담임 경력이 있고, 3학년 부담임을 맡아 12학년 친구들과 인연도 있던 상현 쌤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러던 중 당시 학교는 교장이셨던 손 쌤에 이어 새로운 교장을 어떻게 선출할지 고민 중이었고, 새롭게 선출해 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내·외부 공모제로 결정되었다. 모두 외부 분들만 지원하면 교사회가 참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다들 누군가 한 명은 나가야 할 텐데’ 하며 걱정했다. 상현 쌤은 6학년 담임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교사회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교장 공모에 참여하면 토론회 등 일정으로 6학년 담임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고, 12학년 친구들에게도 이래저래 빛이 있었던 나도 무언가 해야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게 다시 안식학기를 1년 미루고 6학년 담임에 자원하게 되었다.

겨울 방학부터 그동안의 고민을 듣기 위해 면담을 돌기 시작했고, 몇몇 친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친구들이 제법 있었다. 몇몇은 방학 중 자퇴 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추운 덕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추워하고 있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알아서 다들 인턴십을 진행할 단체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6학년 인턴십이 시작되었고 방문을 가면 원래 그 단체 사람이었던 것 마냥 맞아 주는 친구들이 신기했다. 다들 각 현장에서 첫 사회 경험을 쌓으며 열심히 살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자라난 생각이 써 먹히는 것에 놀라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인턴십을 잘 마친 12학년 친구들은 무척 어른스러워졌고, 학교를 편안해했다. 이어 진행된 인문학 캠프는 간디학교에서 소처럼 있었던 8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 주었다. ‘배움의 즐거움’과 ‘배움을 함께하는 즐거움’과 ‘배움을 나누는 즐거움’과...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쌤들과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한다.

이제 졸업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왠지 뿌듯하고, 왠지 쓸쓸하다. 바빠서 아침 열기에 못 들어가면 우리 담임은 누구냐며 아우성이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쫓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추억은 기억보다 낫하니까. 걸어온 시간한테는 밑에서 한 장. 다 못한 말들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내 옆을 지켜 준 사람들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걸어갈 길들에게 마지막 한 장.

“인디언(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맞는 표현입니다)이 되었으면! 질주하는 말 잔등에 짹짹 올라타, 비스듬히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는 대지 위에서 거둬거둬 짧게 전율해 봤으면, 마침내는 박차를 내던질 때까지, 실은 박차가 없었으니까, 마침내는 고삐를 집어 던질 때까지, 실은 고삐가 없었으니까,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땅이라곤 매끈하게 풀이 깔린 광야뿐일 때까지, 이미 말 모가지도 말 대가리도 없이.”

- 프란츠 카프카, <인디언이 되려는 소망>

힐링은 내가 책임진다!

권윤서 기자(2학년)

힐링은 내가 책임진다! 필자보다 학교를 훨씬 전에 만난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휴식을 담당하고 계신 분! 이선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명상하는 법부터 올바른 자세까지 간디인에게 필요한 걸 다 알려 주셨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휴(休) 센터에서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휴 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휴 센터는 말 그대로 휴식과 치유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체조나 요가, 명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철학과 방법을 알려주는 '온순환 농부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한겨레는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든 회사예요.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

든 사람이 많아졌죠. 힐링,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한겨레에서 휴 센터를 만들었어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주권 등 사회적 어려움이 잇달아 생기면서 힐링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휴 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자기치유 프로그램을 해요. 먼저 체조로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호흡법으로 몸을 가다듬고 명상을 해요.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몸, 마음이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걸 보

고 싶으면 네이버에 '몸을 살리는 휴'를 검색해 보세요. 휴 센터에서 진행했던 칼럼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선생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해 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 주세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견디지 못하겠지만 스트레스는 견디지 못할 만큼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명상할 때의 팁이 있나요?

명상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아무 생각을 안 떠오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물건을 쳐다보거나 한 생각에만 집중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세 교정에 좋은 자세를 알려 주세요!

허리를 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자세를 바로 하고, 몸 살림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할 수 있다면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기 힘들다면 산책할 때 뒷집지고 걸으면 자세가 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세가 점차 좋아지니깐 꾸준히 해 보세요.



간디학교를 어떻게 아셨나요?

1998년에 일 때문에 처음 산청에 가서 간디학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가 보니 학교가 좋아서 아들들을 산청간디학교에 보내고 제천간디학교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원도 시작하게 되었죠.

대안학교 중에서 간디학교가 가장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간디학교는 제도권 교육 등,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간디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 같아요.(웃음)

힐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를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선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 꼭 놀러 오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몸 살림 열심히 하며 자세를 짹 펴시다! ♪

간디학교의 꽃, 다시 피자!!

이재형 기자(4학년)

올해 들어서 난 동아리 활동에 더 흥미를 잃고 있다. 매주 두 번 정도 하는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봄에 간디학교에 왔다. 새로운 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놀이, 새로운 수업도 많았지만 가장 새로웠던 건 동아리가 아니었을까? 초등학교에서는 구경도 못 했다. 오후 2시 반까지 선생님들의 수업만 가득 차서 친구들과 모여 다른 활동을 할 생각도 못 했는데 “간디학교의 동아리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하면서 동아리 한마당을 봤다. 동아리를 5개나 했다. 매주 하는 활동도 기숙사에서 하는 회의도 재미있었다. 너째나째에 들어가서 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솔피바람에서 북을 쳤다.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동아리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했고 평소 가깝지 않던 사람들과 만났다.

1년, 2년하고 3년이 지났다. 4학년 학생이 된 나에게 동아리 활동보다 더 먼저인 일들이 찾아오고 지나갔다. 동시에 동아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하

고픈 마음은 있는데 귀찮아서, 바빠서 뇌뒤틀다가 여유 있을 때, 아니면 마지못해 했던 동아리 활동을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하니 나 혼자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나 뭐라나.

학생들의 동아리

1~4학년 47명에게 스스로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물어 봤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는 한 사람당 평균 2~3개 정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만족도를 물어 보니 ‘보통이다’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았다. 만족하는 학생들과 불만족하는 학생들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킹왕짱 만족하는 학생보다 킹왕짱 불만족하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1~5점)이 자신의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2017/11/24 '자신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점수 | 킹왕짱 만족 | | | 보통 | | | 킹왕짱 불만족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명 | 2 | 3 | 9 | 5 | 7 | 7 | 2 | 4 | 3 | 4 |
| 합 | 13 | | | 21 | | | 11 | | | |
| | 만족 | | | 보통 | | | 불만족 | | | |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자신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속한 동아리가 부원들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모두 동아리에 관심도 없으며 늘어지고 처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어깨동무¹의 회장 마루는 “몇몇 부원들은 성실한데 거의 대부분이 귀찮아한다.”고 했고, 풀이라면²의 회장 승훈이도 “(부원들이)잘 안 모인다. 모이자고 해도 다들 의욕이 떨어져 있고, 모여서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다들 의욕이 떨어져서 뭐가 안 된다.”고 했다.

불만족하는 학생들 중에는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의욕이 떨어져서 자신도 할 마음이 없다.”, “귀찮다.”, “만날 하던 활동을 해서 질린다.”라는 이유로 동아리 활동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도 있었다.

이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2명의 학생이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3명의 학생은 재미가 없다고 했다. 예전엔 즐겁고 새로웠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 없고 질렸다고 답한 학생이 3명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답을 들어 보니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만족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유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동아리 연합회장³한 별이는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는 4~5개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활동하는 동아리가 18개인 것에 비하면 적은 수다. 동아리가 원래 이랬던 걸까? 최근 부쩍 잠잠해진 동아리들의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닌 듯하다.

“빨간비디오의 주요 멤버인 6학년이 인턴십, 인문학을 하면서 기동이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부원들이 의지가 없어 가지고 망했잖아.” - 빨간비디오⁴ 회장 진주열

“초반에는 재밌게 했는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우리 위 학년들이 나가고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이 높아지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된 것도 있고 지치고... 작년엔 비해서.” - 빵아저씨⁵ 회장 오우진

“내가 1학년 때(2015년)는 어깨동무가 되게 잘됐



고, 2학년 때도 잘 되다가 2학년 겨울 방학 직전부터 좀 거시기 해졌고.” - 어깨동무 회장 김마루

“사실 1~2년 전부터 의욕은 다들 없었다. 지금 6학년이 3학년일 때 그 때는 조금 했던 것 같은데.”

- 풀이라면 회장 김승훈

4년 동안 동아리에 일어난 일

2017년 겨울이다. 3년 전의 동아리와 지금의 동아리는 무엇이 다를까? 즐거웠던 동아리 활동이 이전

왜 이렇게 귀찮기만 한 걸까? 왜 뒷전으로 밀려 버린 걸까? 2014년, 제천간디학교 동아리는 모두 18개. 이후 오케스트라 동아리 ‘필 오케스트라’와 연극 동아리 ‘여우하품’이 사라지면서 올해 16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었고, 사진 동아리와 보드게임 동아리가 생겨나면서 18개 동아리가 현재 학교에 남아 있다. 3년 전과 지금, 동아리 개수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무엇이 변화한 걸까? 2014년도 동아리 연합회장부터 2017년도 동아리 연합회장까지 모두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 2014년 동아리 연합회장 신동헌 | 2015년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차한비 | 2016년 동아리 연합회장 김예현 | 2017년 동아리 연합회장 김한별 |
|---|---|--|--|
| 당시 활동이나 교육 등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잡힌 빵아저씨, 솔피바람 정도만 잘 굴러가고 나머지는 그냥 유명 동아리였다. 초반에는 잘 활성화 되는 듯해도 가면 갈수록 동아리가 죽어 갔다. | 동아리 연합회에 회장 대신 대타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역시나 유명 동아리들도 있었다. 지금보다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안 되기 시작했다. | 몇 동아리들은 동아리 연합회 회의에 들어올 필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활동을 안 했던 반면에 얘기할 것도 많고 모이는 것도 많아서 활동이 잘 된 동아리들도 있었다. 그래도 활동이 잘 안 됐던 동아리보다 활동이 잘 된 동아리가 더 많았다. | 작년보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적은 느낌이다. 각 동아리마다 원래 하던 활동도 잘 안 하고 의욕도 떨어져 분위기가 축 처진 것 같다고 한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

1.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2. 효소를 만들어 판매하는 동아리입니다.
3. 각 동아리의 회장이 모두 모인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읍니다. 동아리 간의 교류 활동, 동아리 지원금 지원 등을 하곤 합니다.
4. 영상 제작 동아리입니다.
5. 빵 만들어 파는 동아리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 들어와 동아리 활동을 했던 4년의 시간 동안 동아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4년간 동아리 연합회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4년 동안 동아리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항상 안고 왔다. 유령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계속되었고, 학생들의 세대가 바뀌면서 의지가 전보다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017년 동아리 활동은 전보다 더 침체되고 있는 듯 보인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을까?

체계적인 시스템

빨간비디오 회장인 주열이 형에게 “신입생들이 빨간비디오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일 텐데 신입생들의 교육이나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나?”라고 물었다. 주열이 형은 “시간도 없다. 가르칠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귀찮다.”라고 답했다. 빨간비디오 회장인 우진이에게도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신입생 교육이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 보니 “우리 자체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뭘 가르쳐 주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내가 만난 회장들은 대부분 부원들의 세대가 바뀌면서 활동이 침체되었다고 얘기했다. 2015년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한비 형도 기존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세대가 바뀌었는데, 동아리 활동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세대가 공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학생들이 더 재밌게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내에서 배움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4년 동아리 연합회장이었던 동헌이 형은 동아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조했다. 어쩌면 동아리에서 가장 의욕 넘치는 부원들은 갓 동아리에 들어온 신입 부원들일 것이다. 신입 부원 교육, 활동 계획 등 동아리에서 짜여진 시스템이 있다면 신입 부원들이 참여하고 배우기가 더욱 수월하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원들이 따라가다 지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 지칠 수 있다고 동헌이 형은 말한다.

그때그때 계획하고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풀이라면 회장 승훈이에게 “풀이라면의 동아리 활동이 잘 되고 운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을까?” 물었더니 정기적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정당⁶은 매주 2번씩 정기 연습을 하고 있다. 부회장 다민이에게 물어 보니 동아리 안에서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알려 주는 것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정당의 모습을 보면 체계적인 교육과 계획이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돕고 있다.

새로운 변화

하지만 변화도 필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 같은 활동이 반복되어 재미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2015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한비 형은 “거의 모든 동아리가 해 오던 것을 이어서 한다. 그래서 계속 동아리에 있던 사람은 그게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많은 동아리들이 매년 같은 활동을 똑같이 이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동아리 활동에 흥미를 잃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시스템이 잡히는 것은 필요하다. 그와 함께 변화된, 새로운 활동도 지금 동아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회장의 역할이란?

동아리 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 동아리 회장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많

았다. “회장의 역할이 컸다. 당시에는 동아리가 대부분 잘 안 굴러갔다. 그걸 바로잡는 게 회장의 역할 이어서 회장 혼자서 끙끙 싸매는 것 같다. 그거를 다 아니까 다들 회장을 잘 안 한다.” 동헌이 형은 2014년 당시 동아리 회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동아리 연합회장 예현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동아리는 정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장한테 다 넘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회의에 들어가는 대표는 있겠지만 대표가 문서 작성, 회의 진행 등 모든 것을 다 해야 해서 그 사람만 힘들어진다.”

올해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현 동아리 연합회장 한별이도 “부원들이 의욕이 없으니까 회장이 맡은 일이 더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6. 24반 무예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회장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승훈이는 “(풀이라면이) 이번 학기 3주 동안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보고 회의하자고 뭐 없냐고 얘기를 안 해.”라고 했다. 부원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 일이 생기면 회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동아리는 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동아리 회장은 혼자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활동하는, 함께 하는 동아리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간디학교의 꽃, 동아리

동아리가 간디학교의 꽃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 체계적인 시스템, 새로운 변화, 모두 함께 하는 동아리. 다들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의지, 흥미가 없으면 안 될 거다. 의욕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귀찮아서... 여러 이유로 힘든 동아리 활동이다. 학교 일과 속에는 수업, 학생회, 숙제 등이 들어 있다. 동아리는 학생들이 모여 함께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하는 몇 없는 활동 중 하나이다.

학생 설문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즐겁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새로운 멤버들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고도 했다. 동아리 활동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물어 보니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 학생이 12명으로 많았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학생이 4명이었다. 간디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예 몰랐던 것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자기개발도 된다고 답했다. 현 동아리 연합회장 한별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니까 제대로만 된다면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2014년, 재밌었던 동아리 활동이 다시 내게 찾아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활기찬 학교생활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간디학교의 꽃, 다시 피자!! 🌸

엄마! 김창수!

박우제 기자 (3학년)

춡디추운 겨울을 맞은 화제의 인물! 이번 주제는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많은 후보들을 당당히 제친 겨울 호 화제의 인물은 바로 이철수 선생님과 5학년 김창수 군입니다!!(재! 박수 한 번 주세요호~!) 지금 보러 가시죠!



자기소개 부탁해

창수: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창수입니다. 현재 학생이고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철수 쌤과 케미²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하동문이고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천 간디학교에 들어온 지 3년 되어 가는 교사 이철수입니다. 현재는 노동인권 수업을 비롯해 5학년 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짝궁이라는 주제로 화제의 인물에 선정됐는데, 소감 한 마디만!

철수: 창수랑 나랑 수자 돌림이 같아서 짝궁이 됐나? 하여튼 화제의 인물로 뽑아 주셔서 간디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창수: 저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화보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번 콘셉트를 보고 살짝 아쉽네요.

사람들이 환상의 짝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 거 같아?

철수: 그게 미스터리인데... 특별한 일이 없잖아?

창수: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쪽 담임을 하시고 논문지도까지 맡아 가지고 잘 맞는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 같아.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철수: 난 모든 사람들과 잘 맞는 한데 창수랑은 만날 붙어. 운명의 장난 같다니깐.

창수: 잘 맞는 거 같지는 않는데... 잘 통하는 선생

님이야.

철수: 워낙 통하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 선생님이지. (웃음)

자신들 말고 진정한 환상의 짝궁을 뽑는다면?

창수: 재민(2학년)이랑 석연(2학년)이.

철수: 재민이가 석연을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아. (웃음)

논문 지도교사도 철수 쌤이었잖아. 비하인드 스토리 없어?

창수: 내가 국어에 좀 약해. 그래서 철수 쌤한테 맞춤법을 봐 달라고 했다. 그런데 안 봐 주시더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 논문 집에 맞춤법이 틀린 채 나왔을 거야. 그게 아직도 아쉬워.

철수: 그랬었구나...! 몰랐었어. 창수가 나한테 봐 달라고 이야기한 건 기억하는데, 그 뒤로 계속 잊어버린 거 같아.

혹시 본인도 맞춤법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웃음)

철수: 내가 대학 신문사 편집부였어. 글 쓰는 것을 많이 했다고!

철수 쌤, 창수가 자길 좋아한다고 퍼트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철수: 나는 안 그러고 우리 반 애들이 그랬어. '창수가 쌤을 많이 따르다, 쌤 바라기다.'라고. 이번에

■ 케미: 영어 chemistry에서 유래된 단어. chemistry의 뜻 중에 사람 사이의 화학 반응을 지칭하는 신조어.



창수랑 또 같은 반이 되었을 때는 운명의 짝꿍이라고 하더라.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철수: 나는 요즘 즐기는 것은 건축. 건축수업을 내년에 준비하는 중이라서 재미있게 건축과 생활 기술을 공부하고 있어.

창수: 나는 학교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거든. 그래서 수업 한 번 더 듣는 것보다 친구들과 한 번 더 노는 것이 더 좋아. 친구들이랑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 일탈을 만날 하는 중이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

철수: 내년에는 인턴십을 담당하는 교사가 되어서 6학년 친구들을 밖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 창수와도 학교 밖에서 만나서 잘 지나나 보지 않을까?

창수: 내가 아직 인턴십을 갈 곳을 못 정했어.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니 슬슬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학교를 나갈 것이 아니라면 인턴십을 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탈을 꿈꾸지 않을까.(웃음)

서로에게 해 주고 싶은 말(바라는 점)

철수: 창수가 친구들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는데, 관계는 살아 가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제 학교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고, 이제는 오롯이 혼자 서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으니 자기 진로에 기여하고 준비도 하는 창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창수: 우리 골칫거리 13시반을 3년 동안이나 맡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수: 졸업식 다음날 진하게 소주나 한잔하자.(웃음)

[번외] 플레이 리스트 ♪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철수: D.O(디오)(EXO) <외침>

영화 <카트> OST

창수: 이석훈 <우리라는 세상>

드라마 <고백부부> OST

좋아하는 아티스트

철수: 정태춘

창수: 임창정

좋아하는 노래

철수: 정태춘, 박은옥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창수: 이석훈 <우리라는 세상>

드라마 <고백부부> OST ♫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이성민 기자(2학년)



주를 여는 시간(이하 주여), 전교생과 전교사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그 주 발표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자신의 발표 차례가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어렸을 때 사진을 틀곤 하는 아주 활기찬 시간이지요. 하지만 점차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는 주여는 지금 침체기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두 번째 '우리 지금 만담'에서는 주여에 대해 5명의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 시: 2017년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장 소: 하늘마루(생활관) 다목적실

참석자: 김지민(5학년, 2017년도 주여위원회장),

류소정(4학년), 오승택(4학년),

임다은(3학년, 2017년도 주여위원회 부원),

이다솜(2학년), 이성민(2학년, 기자)



Take 1.

성민: 주여의 전체적인 얘기와 요즘 주여가 힘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런 얘기를 해 볼까 해. 먼저 요즘 주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소정: 요즘에는 주여 발표하는 사람들조차도 원래 취지처럼 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나누는 것보다 대충 영상 하나 띄우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안 하게 돼. 요즘엔 딱히 주여가 가족회의처럼 다

들어오는 느낌도 아니고.

승택: 주여는 다 함께 한 주를 여는 정말 좋은 시간이지? 근데 이게 계속 강제된 발표, 재미없는 시간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의미도 점차 퇴색되는 거지. 이젠 주여의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 정말 주를 여는 시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는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민: 우리 학년은 주여를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3년 밀린 애도 있고, 안 들어오는 애들도 많고. 후배들이 우리 반 보면 '주여는 이렇게 왔다 갔다 빠져도 되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 다 들어와야 하는 건 맞는데 인식이 애매하다 보니까 사



람들이 딱히 터치도 안 하잖아. 가족회의 안 들어오면 '재넌 또라인가? 왜 가족회의를 안 들어오지?' 하는데, 주여 안 들어오면 '아 재네 안 들어왔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확실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

다은: (요즘은) 다 의욕이 없으니까 주여위원회로서 진행을 하면서 나조차 의욕이 없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바뀌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

다숨: 나는 주여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할 차례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걸 많이 봤어. 의욕도 없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승택: 갑자기 생각났는데 주여를 덕래 쌤 세미나처럼 한 주에 한두 명씩 <알쓸신잡>² 같은 컨셉으로

서로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지. 자기가 아는 것들을 공유하는 식? 재밌을 것 같아.

Take 2.

성민: 주여위원회에서 시도한 새로운 방식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주제 정해 놓은 거나 주여 안 한 사람 업사 트는 거⁴ 어땠어?

다은: 주제 선정해 놓은 건, 그 주제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취지는 좋았지만, 뭐랄까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 딱히 의미 없었지 않나.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

승택: 주제를 그냥 참고하라고 두고 거기서 할 게

-
1. 덕래 쌤이 기획하신 세미나 <나에게 시간을 줘. 내가 가르쳐 주마(2017.11.22).>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자신이 정한 주제로 제한시간 20분 안에 강연.
 2. 2017년 6월 2일부터 tvN에서 방영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3. 주여위원회가 2016년부터 시도한 방식으로 주마다 주제를 정하고 신청자를 받는 방식.
 4. 주여위원회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시도한 방식으로 주여를 하지 않은 사람의 업기사진을 트는 방식.

없다면 여기서 네가 골라서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굳이 주제를 안 정해 줘도 되고.

다음: 오오!

다솜: 나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압박감 같은 게 느껴져서 음... 그랬었어.

지민: 엽사는 틀면 애들이 주어를 빠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사진이 딱 나왔는데 안 나오면 어디 있으신가요? 하고 애가 없어. 그럼, 좀 그렇잖아. 그럴 줄 알고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했는데 사실 그런 글⁵도 올라오다 보니까 심정이 복잡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 심지어 ppt 틀어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다솜: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성민: ‘주를 여는 페미니즘’⁶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변하면 주어가 예전처럼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지민: 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해. 저번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 시간을 이용해 가면서 이걸 들어야 되나.’라는 말도 나왔고, 더 오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전체의) 동의 없이 주어위원회에서만 정하는 게 맞는 건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다솜: 그런 코너를 새로 만드는 게 주어위원회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딱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소정: 지금 주어위원회가 발표해야 하는 사람들을 쪼고 체크하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계속 그렇게 반복될 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진짜 할 거 없어서 설명도 없이 무비 같은 거 하나 틀고 좋은 한 주 되세요~ 하고 내려오고, 1학기 때 누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싶고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성의 없어 보였어. 근데 요즘은 다들 그런 식으로 끝내니까, 나도 주어 자체에 의지가 없어서 ‘아 그럼 나도 대충 하고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부터 먹어져.

성민: 주어위원회는 어디까지 간섭해야 하는 걸까...?

승택: 주어위원회가 간섭한 순간부터 바로 반발도 심해지고 역효과 밖에 안 날 것 같고... 간섭하지 말고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항상 뭘 하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항상 우리의 큰 걸림돌이지.

소정: 근데 사람들이 주어를 미루거나 아예 안 하거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발표하는 자리가 전교생 앞이어서 되게 부담스럽다면 주어의 규모를 줄여서 반별로 한다든가. 이유가 뭔지 찾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안 하는지 좀 더 집중해서.

지민: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반별로 한다든가 학년별로 한다든가.

성민: 주어위원회 회의 때 문밤⁷처럼 소감 적은 걸 추천해서 상품 주자는 의견도 있었어. 간디인 상⁸ 줄 때같이.

다음: 주어 상. 한 번도 안 빠진(사람에게).

성민: 괜찮은 것 같아. 학기말이나 연말에 ‘인상 깊었던 주어 상’ 줘도 괜찮고, 애매하게 대충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Take 3.

성민: 궁금한 거였는데, 처음 입학하고 나서 주어의 첫인상은 어땠어?

지민: 나는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땐 그냥 무슨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가니까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공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에 관한 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1학년 때 나에 대한 기본 정보만 (발표)했던 것 같아. 1학년 때 주어는 정말 재밌었어.

소정: 1학년 때 시범 주어로 민석, 지담, 상운 오빠랑 노래를 부르는 걸 딱 들었는데 진짜 너무 주어가 하기 싫은 거야. 이걸 왜 하는지 설명도 안 해 주는데, 그럼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나는 너무 하기 싫었어. 1학년 때는 그냥 부담스러운 자리? 딱히 하고 싶은 주제도 없었

고. 전교생 앞에 혼자 딱 나와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다솜: 나는 딱 처음 들어가고 나서 5학년 때까지 뭘 할 건지 짜리락 정리를 해 놨었어. 근데 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었어.

지민: 대단한 친군데?

다음: 난 1학년 때 뭐 했지? 진짜 기억 안 난다. 1학년 때는 소정언니랑 비슷하게 진짜 아예 나가는 것 자체가 싫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자리였어.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딴 사람 거 보는 건 재밌었어. 기억나는 게 우정 언니랑 누구지? 언니 둘이랑 오빠 둘이 춤쳤었거든? 핑크색 옷 입고 막.

승택: 수빠두빠 디빠!

소정: 그 홈스테이 집!

다음: 맞아 맞아. 어쨌든 보는 건 되게 재밌었어.

6.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코너. 페미니즘에 관련된 영상, 글 등을 공유함.

7. ‘문화의 밤’의 줄임말. 한 달에 한번 학교 행사 중 하나.

8. 1년에 한 번 간디인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학교장 도장이 찍히는 상. 자라는 마음상, 초록 사랑상 등이 있음.

1학년 때. 난 안 하고 싶었는데.

승택: 지금 고등부 모습 보면서 중등부가 좀 따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민: 사실 많이 미안하더라고. 우리 학년이 (주는) 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서.

승택: 나는 주여 한 번도 안 췌 봤어.

지민: 아, 진짜?

소정: 중간에 나간 적은 있잖아.

승택: 나 한 번도 췌 적 없어 진짜로. 아침 열기, 주여, 가족회의, 그리고 기숙사에서 늦게 내려온 적도 한 번도 없어. 나는 되게 바르게 살아 가지고.

지민: 올바른 어린이네.

성민: 근데 왜 다들 가족회의는 들어가는데 주여는 안 들어갈까?

다솜: 뭔가 그런 분위기?

승택: 가족회의는 좀 중요해 보이잖아. 그리고 주여는 가볍잖아.

지민: 뭔가 썸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 예를 들어서 주여 시간인데 기숙사에서 안 내려왔어. 전화를 하겠지. 왜 안 내려왔냐, 정신 차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가족회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내려왔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데리러 오시잖아.

성민: 진짜?

지민: 응 진짜 데리러 오서. 나 그래서 끌려간 적 있어 3학년 때. 철수 썸이었나?

승택: 옛날에 선호 썸도 자진 아침 열기 끝나면 꼭 하는 게 기숙사 올라가서 형들 깨우는 거라고 했는데.

성민: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들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궁금해서 (물어 볼게), 다솜이가 되게 임팩트 있는 주여⁹를 했잖아. 주여가 발표의 자리로 써 도움이 되었는지?

다솜: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주여가 있어서 되게 좋았어. 가족회의 알림으로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주여가 있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주여였던 것 같아.

Take 4.

성민: 그럼, 마무리를 해 볼까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주여의 모습은?

소정: 윤하 썸이 주여는...

다 같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정: 계속 그런 소리를 하셔서 나한테 항상 주여는 뭔가 역사 깊고 깨져서는 안 되는, 지켜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말이야.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주여가 망하고 안 돼 간다 싶으면 구조를 싹 다 갈아 없든 주여를 하지 말든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

지민: 주여 없어진다고 이상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승택: 근데 난 좀 아쉬울 것 같아.

소정: 그건 그래. 근데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승택: 재밌고 진짜 주를 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다 함께 주를 열어 보자고.

다솜: 나는... 정말 이상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좀



의욕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은: 모두가 열심히 하는.

다은: 주여 막 두세 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럴 수 있나?

지민: 딱 생각하는 건 꼭 찬 강당과 꼭 찬 사람들. 핸드폰 대신 발표자를 집중하고 있는 눈빛과 그 발표자도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하고, 사회자도 만날

딱딱하게 그러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다은: 왜냐면... 대본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

지민: 대본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 막 프리스타일로. 하여튼 뭐 의욕도 있고 다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주여가 됐으면 좋겠네.

다은: 으음 맞아. ✂

9. 이다솜 학생은 주여 시간에 '젠더퀴어'라고 커밍아웃했다.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이한솔 기자(5학년)

본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18살 나는 고등학생 탐정 남동일, 불의의 사고로 몸은 작아졌어도, 머리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얼마 전, 제천간디학교에 노래방이 생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장 조사를 하러 가야 한다. 누가, 어떻게, 왜 노래방을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 나는 미란이의 눈을 피해 몰래 제천간디학교에 잠입했다.

아니나 다를까, 운동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왔다. 소리를 쫓아가 보니 구석에 웬 빨간색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서 쿵쾅쿵쾅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슬쩍 안에 들어가 보았다. ㄷ자 모양의 소파와 테이블, 미러볼, TV에 스피커, 반주기까지! 완벽한 노래방의 모습이였다. 심지어 벽에는 방음공사까지 되어 있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꼭 밝혀내야 한다! 범인은, 하나!

우리 쪽 정보원 A씨의 도움으로 계좌를 추적해 보니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거래가 급증했더군. SNS를 활용하여 간디인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모은 돈은 어디 갔을까? 출금내역을 보니 이 돈은 반주기, 스피커 등 노래방 기계를 사는 데 쓴 것 같다. 아까 기계 상태를 보니 중고 제품인 것 같던데, 어디서 이런 걸 잘도 구해 왔네.

또 새로운 입금내역을 찾았다. 내용은 10월 15일 수수잔치 사과파이. 덕산에서 매월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사과파이를 팔았던 것 같다. 수입이 꽤 짝짝하다. 그럼, 이 돈으로 부속품들을 사고 방음공사를 했겠군.

그렇게 계속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걱정하던 중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가 보았다. 이번엔 돋보기와 수첩을 들고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

이다. 우선 소파. 크기도 높이도 제각각인 오합지졸 소파 세트는 어디서 가져온 걸까? 가장 작고 폭신한 소파에 코를 들이밀고 냄새를 맡아 봤다. 그런데 이 냄새는 덕산 토박이의 냄새가 아닌가! 숨 냄새와 수수 냄새가 섞인 것이, 분명 덕산 어딘가에서 주워온 소파임이 틀림없다. 옆에 있던 소파들도 냄새를 맡아 보니 하나는 흙먼지 냄새가, 하나는 도시 냄새가 났다. 소파들은 전부 출신지가 다름이 틀림없다.

다음, 수납장 위에 놓인 저 TV! 유일하게 새 것 같지 않은가. 다른 기계들은 누가 봐도 중고제품인데, 이상하게 저 TV만 광이 나는군. 손가락으로 슬쩍 쓸어 보니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았다. 누군가 노래방이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짜로 후원해 준 것일까? 그리고 이 컨테이너! 분명 정보원을 통해 들은 바로는 벽에만 방음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천장에도 달려 있는 흡음재. 그렇다는 건 노래방이 생기기 전, 이 컨테이너에 소음이 있었다는 것인가? 내 추리가 맞다면, 이곳은 분명 밴드 연습실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장 조사로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단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바닥에 웬 서명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것은... 노래방 지지 서명서?! 대체 몇 명이나 지지를 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져 학교에 굴러다니는 서명서를 주웠다. 그랬더니 모두 89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노래방 지지 의사를 비친 것이 아닌가! 대체 노래방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응원하는 것일까? 다들 노래방 광인가?

몇 안 되는 단서만으로도 벌써 이만큼 추리를 해 내다니,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 노래방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혹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마리가 잡힐까 싶어 학교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다섯 번째 교실을 지날 때쯤,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각 교실마다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만 잡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많지만 조용하고 적막한 교실은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들 대화는 하지 않고 핸드폰만 잡고 있으니, 여러모로 논란이였겠군. 그렇다면 혹시, 노래방을 만든 이유가 전자기기 때문일 수도 있을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분명 있을 것이다.

추리해 보자면, 전자기기로 인해 소통이 줄어들자, 누군가 직접 나서서 다 같이 놀 수 있는 활동으로 노래방을 만든 것인가? 나름 그럴싸하다. 괜히 생겼을 리 없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럴 때가 아니지.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내야 노래방을 만든 이유도 알 수 있을 테니까.

결국 나는 교류학생으로 위장해 학교를 돌아다녔다. 추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몇몇 학생들을 붙잡고 노래방에 대해 물어 보았다.

C: 노래방 진짜 재밌어! 잘 만든 것 같아. 취지대로 잘 이용됐으면 좋겠어. 노래방을 시작으로 이런 활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C 학생은 누가 노래방을 만들었냐고 물어보자 비밀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결국 다른 학생을 찾아갔다.



D: 그 누구더라... OOO이 만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D 학생은 엄청난 단서를 주고 떠났다. OOO이 누굴까... 결국 나는 계속 학교를 뒤져 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내 포위망에 포착되었다! 딱 봐도 노래방 창시자처럼 생긴 학생을 발견한 것이다! 너의 눈, 코, 입 모두 노래방과 아주 연이 깊다! 내 추리가 맞다면, 분명 저 학생이다! 범인은, 바로... 너!

안녕하세요! 제천간디학교 노래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5학년 이한솔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과 도움으로 11월 21일 화요일, 드디어 노래방을 오픈했습니다! 위 기사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가볍게 풀어 보았는데요, 고난이 추리하고 내세운 가설들은 모두 팩트임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각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던 학교가 이런 모습이었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칙으로써 규제를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한순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보장된다면 그 시간만큼은 학



생들이 전자기기를 스스로 놓지 않을까, 이어서 또 다른 활동을 스스로 고민하고 꾸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파격적이면서 신나고, 또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했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노래방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을 내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운이 좋아 동네 철물점 사장님께 TV를 후원받기도 하고, 집가는 날에 선고 2구 정류장 옆에서 딱 맞는 소파를 주워 오기도 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쯤 좋은 일이 생긴 덕분에 날짜를 미루면서까지 완성했죠.

훗날 생각했던 것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노래방을 유지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큰일 낼 수 있다고 친구들한테 말해 주고 싶어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친구들이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갈 학교와 학생들을 유심히, 그리고 예쁘게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알람

하상욱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발의 향기

조연지(3학년)

발에서 나는 향기는

안 뻘 수건 향기
청국장 향기
땅이 뭉친 향기
식초 향기
똥 향기 등

하루하루 진화하는
발의 향기를 맡으며

나의 코도 진화한다.

후원인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후원인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편지는 <간디IN> 2017년 겨울호에 얹혀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학생 편집진들이 어떻게든 마음을 당겨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널리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우리학교 6학년 아이들(12학번) 20명이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졸업식 참여는 세계 첫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건만 그 때의 감동이 가시지 않습니다. 졸업하는 한 아이, 한 아이가 15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10여 분간 자신들의 정서, 경험, 느낌을 전합니다. 그 자체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범벅된 박찬 감격이 식장에 가득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청소년기 학생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들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른 채 '교육'에 대한 선부른 생각을 30년 가까이 글로 적어 세상에 내놓는 무모한 '짓'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서 발생하며, 그에 따른 해답 역시 현장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들만 결과물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그 때마다 했던 생각들, 친구들과 했던 얘기들이 내가 학교에서 했던 행동의 결과물이 될 수 있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 한 명이 <간디IN>에 기고한 글 일부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다가, 혹은 불안에 떨다가 문득 깨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축적된 어떤 '힘',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비가시적 '끈'을 발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투명 졸업장을 자신에게 선사한 셈입니다.

교육에서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학생들은 특정한 경험을 겪고, 그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자기 경험의 권위를 주장하는 새로운 방식을 터득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갑니다. 기존 지식이나 기성세대가 삶을 강제하는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합니다. 경험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간디IN> 이한결 편집장 역시 제천간디학교 생활에서의 '궁상'이라는 주제를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을 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누리고 있을 땐 기를 수 없었던 힘을 얻고 있죠.”

참으로 대견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잘 안 보이죠. 시간을 두고 찬찬이 들여다보아야 발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걸 몰랐습니다.

학교는 아이들 성장의 모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른들에게는 성찰과 각성을 요구하는 깨달음의 공간이기도합니다. 후원인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이런 감격의 순간들을 오래도록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소식 전해드리지요.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병곤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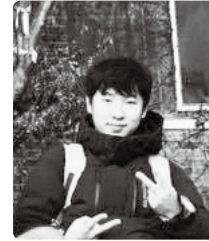


눈이 녹아내리는 사이, 이담 (2학년)



이재형(4학년) 글기자

오늘은 정말 춥구먼... 내려오는데 얼어 버리는 줄 알았어.
이런 날은 정말 움직이기가 싫어 이불로 얼굴까지 덮어 버렸어.
가끔은 이 추위를 두 팔로 만날 자신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워.



이한결(4학년) 편집장

카리스마 편집장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 멀었나 봅니다. ㅋㅋㅋ 상상이라도 마음껏 해서 행복했
네요. 도움 주신 손들 일일이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한슬(5학년) 글기자

드디어 노래방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마지막을 뿌듯하게 마무리
하고 가네요. 앞으로 나올 간디인 재미있게 봐 주세요.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
갑니다!



최문형(4학년) 사진기자

특별히 한 것 없지만 재밌었습니다. 화보 찍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모두모두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짱긋)



최유경(4학년) 글기자

바쁘고 게을렀던 겨울 호도 이렇게 보냅니다. 감사했습니다.



권윤서(2학년) 글기자

벌써 겨울 호가 지났습니다. 겨울 방학만 지나면 3학년이네요~ 올해도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담(3학년) 사진기자

여러모로 힘들었던 겨울 호였습니다. 오랜만에 간썰소를 맡았는데, 저는 글 쓰는 데는 소질이 없나 봅니다. 하하핳

내년 간디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김서준(1학년) 글기자

너무 빨리 빨리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네요. 내년부터는 좀 더 부지런한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하(3학년) 삽화기자

마감을 넘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제(3학년) 글기자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도 고딩이군요. 으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성민(2학년) 글기자

이번 호는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결국 마감을 완벽하게 지키진 못했지만...;; 만담 참여해 준 지민 오빠, 소정 언니, 승택 오빠, 다은 언니, 다솜이 고마워요! 2017년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아하.